

아키나리(秋成)의 문학관

- ‘하지만 사내답지 못하다 하시려나(さてもめめしとや聞たまはん)’ -

스즈키 준

들어가며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는 교토(京都)로 이주한지 4년째이자 64세가 된 1800년 12월 15일에 오랜 세월 함께 했던 아내 고렌니(珊瑚尼)와 사별한다. 『후미호구(文反古)』상권에는

고렌니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로안옹(=小沢蘆庵)이 말했다.¹⁾

라는 제목 하에 로안과 주고받았던 서한이 여러 통 담겨있다. 그 중 노래 앞에 「삶이 힘겨운 노인에게(ありわひつゝ翁へ)」로 시작하는 한 통의 편지와 거의 같은 내용의 서한이 국학원(国学院)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²⁾

듣는 게 괴롭다고 귀를 막고, 눈도 가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토, 오사카의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의지가 될 만한 말을 했던 것도 이제와 생각하니 거짓이었다.

1) 『上田秋成全集』第十卷(1991.11,中央公論社)p.385

2) 『文学』(隔月刊)第一〇卷第一号(二〇〇九年一・二月)의 줄고 「国学院大学図書館所蔵の書簡幅の紹介」에 수록.

교토의 입구 아와타구치(粟田口) / 가엾다고 사람이 / 찾아온 것도 / 바람에 흔적 사라진 / 하늘 위 흰 구름이구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물이 / 멀어지는 모습 보이듯 / 무사시노(武蔵野)의 / 풀 배개조차 / 머리에 꽃은 장식처럼 보이려나.

하지만 사내답지 못하다 하시려나. 지금은 부끄럽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지만.

『후미호구』와 비교해 와카(和歌)와 머리말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취지는 비슷하다. 지금은 특히 노래 뒤에 보이는 ‘하지만 사내답지 못하다 하시려나. 지금은 부끄럽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지만’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키나리의 와카는, 고렌니의 죽음을 경계로 사람들의 표정에서 등을 돌린 듯 차가운 인상을 받은 것을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아키나리는 이와 같이 원망하는 듯이 토로하는 것이, 사내답지 못해서 부끄러워할 일이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때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보인다. 그 정도로 고렌니의 죽음에서 받은 충격이 컸기에, 이로부터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던 모습이 전해져 온다.

그러나 이 ‘하지만 남자답지 못하다 하시려나’ 등의 표현은 와카 앞에 적은 ‘듣는 게 괴롭다고’와 같이 지나친 과장이라, 와카와 딱히 잘 어울린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자연스런 감정에서 비롯한 표현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아키나리가 스스로의 문학관과 연관시켜 일부러 실험적으로 ‘사내답지 못해’ ‘부끄럽다’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된다. 이하 이와 관련해 ‘사내답지 못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아키나리의 문학론을 언급한 최근 연구를 두 가지 정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하라 마사코(原雅子)의 「아키나리의 『도사 일기(土佐日記)』주석—『마스라오』관의 한 계보」(『스미노에(すみのえ)』29-1, 1992년)로 나중에 『에도의 귀재 우에다 아키나리(江戸の鬼才 上田秋成)』(中経出版, 2007년 8월)에 수록되었다. 또 하나는 이쿠라 요이치(飯倉洋一)의 「『아키야마노키(秋山記)』의 재검토—「사내답지 못함」이 의미하는 것—」(『에도 문학(江戸文学)』제 28호, 2008년 5월)로 나중에 「『사내답지 못함』이 의미하는 것—『아키야마노키』시론」으로 제목을 바꿔서 『아키나리 고(秋成考)』(翰林書房, 2005년)에 수록된 것이다.

一、『도사 일기(土佐日記)』의 망아비상(亡兒悲傷)과 다비토(旅人)의 망처비상(亡妻悲傷)

우선 하라 마사코(原雅子) 씨는 아키나리의 스승인 가토 우마키(加藤宇万伎)의 『도사 일기 해(土佐日記解)』의 제본(諸本) 중, 아키나리가 쓴 1799년 경의 강의록에 제자가 붉은 글씨로 ‘대인께서 말씀하시기를(大人云)’ 등으로 써서 아키나리의 설을 첨부한 책이 전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중 하나인 오사카 나카노시마(中之島) 도서관본의 다음 기사(記事)에 주목한다.³⁾

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처음으로 말한 것은 오토모노 다비토(大伴旅人) 경이 옛집으로 돌아가서 즉시 지은 와카 세 수이다.

사람도 없는 / 황량한 집은 / 풀베개 / 여행의 노곤함은 / 더욱 힘겹게 하는구나.
아내와 함께 / 둘이서 만들었던 / 우리 집은 / 나무숲이 높아져 / 울창해져 버렸
구나.

내 아내가 / 심었던 매화나무 / 볼 때마다 / 가슴이 아파서 / 눈물이 흐르는구나.

이것은 쓰쿠시(筑紫)에서 아내를 잃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이곳은 도사(土佐)로 비통하게 아이를 잃은 곳이기도 하다. 비슷한 한탄이므로 옛날을 떠올리고는 이렇게 늘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늘어놓았다고 해서 기노 쓰라유키(紀貫之)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예를 통해 현실의 슬픔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는 겉으로는 사내다워야 하는 사람에게 사내답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던 옛 사람의 마음을 인용한 것이다. 자식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 어찌 사내답지 못하다 하겠는가만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 것을 어찌 하겠는가.

위에 따르면 아키나리는, 쓰라유키가 다자이후(太宰府)의 임기를 마치고 귀경해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읊은 다비토(旅人)의 와카 세 수에 깊이 공감하고

3) 原雅子著 『江戸の鬼才上田秋成』pp.152-153에서 옮겼다. 다만 구두점은 발표자에 의한다. 또한 大阪府立中之島図書館본의 자리매김에 관해서는 一戸涉 「『土佐日記解』成立考一字万伎・秋成の土佐日記注釈一」(『国語国文』第七十八卷第五号、平成二十一年五月)를 참조하기 바란다.

는 ‘닳은 슬픔(似たるなげき)’으로서 『도사 일기』의 자식 잃은 슬픔과 상심의 장면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그 ‘닳은 슬픔’을 표현하는 데에 여성의 문자 형식을 빌린 것은 ‘사내답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옛 사람의 마음이다(めゝしきを恥とするそのかみの人ころ也)’라고 한다.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처음에 인용한 국학원대학 소장의 서간에도 보이는 말이지만, 요컨대 사내답지 못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는 어려운, 중국적 혹은 동아시아적 사대부의 문학관이 목소리를 높이던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아키나리의 이 주석에 대해서 하라 씨는,

인간의 감정이란 걸으면 ‘사내다운 남자(ますら男)’라 할지라도 슬플 때에는 마음이 슬픈 것이기에 ‘사내답지 못하다’고 긍정한다. 『도사 일기』 주석사상(注釈史上) 대단히 획기적인 주석이다.

라며 상찬한다.

『도사 일기』에서 아이를 잃은 비통함을 기술하는 대목은 12월 27일의 단을 말하는 것이다.⁴⁾

그러고 있던 중에 교토에서 태어났던 여자아이가 임지(任地)에서 돌연 세상을 떠나니, 이 때 서둘러 출발 준비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토로 돌아가는데, 딸아이가 죽은 것만이 슬프고 그립다. 같이 있던 사람들도 슬퍼 견딜 수 없어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이가 써낸 노래,

교토로 가자 / 생각은 하면서도 / 서글픈 것은 / 함께 귀경 못하는 / 사람 때문이라네

또 어떤 때는,

지금 사람을 / 잊으면서도 한편 / 이제 없는 이를 / 어디 있냐고 찾으니 / 참으로 슬프구나

4) 新日本古典文学大系 『土佐日記 蜻蛉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1989년1월, 岩波書店)p.5

고 말했다.

이 대목은 일기 마지막에 상경 후 사랑하는 아이와 같이 돌아오지 못한 슬픔을 돌이키며 사람들과 와카를 증답했던 대목과도 호응해, 작품 전체의 주요한 모티브를 형성하고 있다. 아키나리는 쓰라유키가 이 대목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사 일기』를 지었다고도 보고 있는 것이다.

『만요슈(万葉集)』권3의 만가(挽歌)에 오토모노 다비토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와카 세 수가 실려 있다. 여기서 그것들을 우에다 아키나리의 주석 『나라노소마(櫛の杣)』를 통해 인용해 본다⁵⁾.

730년(天平 2년) 12월에 다자이후(大宰府)의 수령 오토모(大伴) 님이 교토로 돌아오실 때 지은 와카.

아내가 보던 / 여기 도모노우라(鞆の浦) / 노간주나무 / 지금도 여전하나 / 보던 사람은 없네

도모노우라 / 그곳의 노간주나무 / 볼 때마다 / 함께 보던 아내가 / 잊혀지지를 않네

물가 바위에 / 뿌리를 늘어뜨린 / 노간주나무 / 그 사람 어딴냐고 / 물으면 알려주게

오토모 님이 쓰쿠시에 계실 적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을 슬퍼했는데, 그 임지에서 교토로 돌아오실 때, 이 물가에 매우 오래된 노간주나무가 있어 임지로 올 때에 아내와 같이 보며 그 아래에서 노닐던 것을 떠올리고 이내 슬퍼져 거듭되는 뉘두리같이 와카를 세 수나 읊은 것이다. (중략) 사람은 어디 갔느냐는 구절에 감동이 있다.

이 노래는 아키나리의 주석에 있듯이, 오토모노 다비토가 다자이후의 임기를 마치고 귀경하는 도중에 도모노우라(鞆の浦)의 노간주나무(杜松)를 발견하고

5) 『上田秋成全集』第二卷(一九九一年二月、中央公論社)二五一—二五二頁。

는, 임지로 내려올 때는 아내인 오토모노 이라쓰메(大伴郎女)와 함께 보았던 것을 떠올리며 읊은 것이다. 아키나리가 특히 유의한 것은, 이 세 와카의 배경에 있어 다비토의 죽은 아내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원인이 되어 세 와카가 거듭되는 냇두리처럼 생겨났다는 것이다. 당연한 지적이긴 하지만 여분의 감상평을 최대한 자제한 『나라노소마(櫛の杣)』에서 이 부분만 굳이 견해를 더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더구나 마지막에 유독 ‘사람은 어디 갔느냐는 구절에 감동이 있다(人はいづらの詞章感あり)’며 언급하고 있는 점과, 앞서 인용한 『도사 일기』에서 아이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읊은 두 번째 와카에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人をいづら)’라는 문구가 있는 점을 아울러 생각해보면, 이 두 와카에 나타난 자구(字句) 표현의 유사성이 다비토의 와카와 『도사 일기』가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을 뒷받침했을지 모른다.

또한 『만요슈』중 훌륭한 와카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알려진 『긴사(金砂)』권4에는 같은 『만요슈』 권3에서 별도의 와카 두 수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⁶⁾.

사람도 없는 / 황폐해진 집에서 / 베는 풀베개 / 여행의 피곤함을 / 더욱 힘들게 하네

아내와 함께 / 둘이서 만들었던 / 우리 정원은 / 나무숲이 높아져 / 울창해져 버렸네

쓰쿠시에서의 임기 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교토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읊은 것이다. 730년(天平 2년) 12월에 쓰쿠시를 떠나 다음 해 3월 교토로 돌아와, 그 해 가을 7월에 오토모 님도 돌아가셨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상심을 이겨 내지 못한 것일까.

다비토는 귀경 후 아내를 잃은 슬픔을 솔직하게 와카로 읊어 자기 마음을 위로하려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그 해 7월에 세상을 뜨게 된다. 아키나리는 다비토의 죽음은 아내에 대한 애석한 감정을 참기 힘들었던 데에 주요한

6) 『上田秋成全集』第三卷(1991年5月、中央公論社)p.179

원인이 있으리라 추측하고는, 다비토가 만년에 정치적으로 불우했던 것과 더불어 가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동정하고 있는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도사 일기 해』 오사카 나카노시마 도서관 소장본에서 아키나리가 인용한 것도 바로 위의 다비토의 와카이다.

二、「아키야마노키(秋山記)」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비평

이어서 이쿠라 씨는 아키나리의 가문집 『쓰즈라부미(藤簾冊子)』 권3에 수록된, 1779년(安永 8년) 다지마(但馬) 지방의 기노사키(城崎)에 온천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의 기행문 「아키야마노키(秋山記)」에서 전개되는 법사에 의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평을 다룬다. 이쿠라 씨는 법사가 『겐지모노가타리』를 여성 작자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추잡함이나 허약함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았다고 하면서, ‘이런 필치야말로 젊은 여인네의 사내답지 못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かうやうの筆つきなん、をみなのめゝしきほん性にてこそあれ)⁷⁾’라고 결론 지은 점에 주목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⁸⁾.

법사는 『겐지모노가타리』를 도(道)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읽으면 무의미하지만, 겐지를 비롯한 등장인물의 인간으로서의 추잡함, 허약함을 잘 그리고 있다는 점을 실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달성했던 것은 여성의 손에 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답지 못한’ 마음이 이러한 인간의 진실을 찾아낸다고.

즉, 아키나리는 「아키야마노키」에서 법사에 의해 전개되는 『겐지모노가타리』비평을 통해 『겐지모노가타리』가 그 ‘사내답지 못한’ 필치에 의해서만 인간의 본성을 그려낼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으며, 한편으로는 그것을 『겐지모노가타리』의 본질로서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7) 新日本古典文学大系 『近世歌文集 下』(1997년8월, 岩波書店)p.392

8) 飯倉洋一著 『秋成考』(2005년2월, 翰林書房)p.173

또한 이쿠라 씨도 이 ‘사내답지 못한 본성’의 논의 배경에 역시 아키나리의 『도사 일기』론이 있다고 하며, 우마키(宇万伎)의 『도사 일기 해』의 서문을 인용해서 논하는 부분이 있다. 후지이 오토오(藤井乙男) 편 『아키나리 유문(秋成遺文)』에 수록된 「도사 일기 해서(解序)」가 바로 그것이며, 이는 우마키의 『도사 일기 해』권2의 서문으로서 아키나리가 1790년(寬政 2년) 2월에 쓴 것이다. 전체적으로 쓰라유키 자필본, 집필동기 이렇게 두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쿠라 씨가 인용한 후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⁹⁾.

하나. 이 기록이 생겨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쓰라유키가 도사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던 해에 매우 사랑하던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한없이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사람들이 사내답지 못하다고 할 것을 부끄러이 여겨, 여인네의 글인 양 썼다고 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 비롯된다. 옛날 덴표(天平) 시절 다이 나곤(大納言) 다비토 님이 다자이의 수령으로 계시다가 임기를 마치고 교토로 돌아올 때, 일전에 임지로 오면서 보았던 곳들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부인)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와카를 여러 수 읊었는데, 그것들이 만요슈에 실려 있다. 이 일기는 완전히 이 사실에 기인함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다비토 같은 옛 사람의 마음은 솔직함 그대로, 만들어내고 꾸미는 것 없이 기쁨도 슬픔도 나타냈으니, 처자가 세상을 떠나 이별하게 된 데에 기인하는 슬픔임은 말할 것도 없고, 여행을 떠나서도 옛 일이 떠오르는 장소에 가게 되자 어떻게든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위에 대해서 이쿠라 씨는,

쓰라유키는 임지에서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했지만, 이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내답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겨 여자의 문체(히라가나)로 썼다는 것이다. 오토모노 다비토가 임지에서 돌아올 때 세상을 떠난 아내를 추도하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읊었던 와카를 본뜬 것이 아닐까라고 아키나리는 말한다.¹⁰⁾

9) 藤井乙男編 『秋成遺文』(昭和49年11月復刻、国書刊行会)pp.535-536

10) 『秋成考』p.178

라고 기술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수궁할 만한 논의일 것이다. 다만 위의 인용문 중, 처음부터 ‘사람들이 사내답지 못하다고 할 것을 부끄러이 여겨 여인네의 글인 양 썼다고 한다(さすがに人目の女々しさを恥じらひて、女ぶみのさまに書かれしといふ)’까지 이야기되는, 다시 말해 『도사 일기』에서 쓰라유키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슬퍼 탄식하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되는 것은 역시나 부끄러운 일로 사람들의 눈을 꺼려야 했기에, 여자가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 즉 부끄러웠다는 설, 혹은 사람들의 눈을 꺼렸다는 설은 그 말투를 통해 봤을 때, 우마키나 그 외의 사람에게 전해들은 언설이지 아키나리 자신의 설이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고 한다(といふ)’ 식으로 경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보면 우마키가 아니라 마부치(真淵) 주변에서 만들어진 언설로 인식하고 있었던 듯 생각되지만, 확증은 없기에 이는 보류한다.

三、가나 서(假名序) 「이로고노미(色好み)」의 해석

하라 씨, 이쿠라 씨가 ‘사내답지 못하다’는 말에 착안하여 아키나리의 문학관을 언급한 것은 대단한 통찰력이라 할 만하다. 다만 양쪽 다 중요한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언급한 『도사 일기 해』서문에 이어지는 대목을 아래에 인용해 보겠다.¹¹⁾

시대가 융성하여 사람 마음이 꽃(=겉모습)의 예쁜 모습에만 경도됨에 따라, 중국 사람들이 꾸며낸 글의 능란함을 좋은 일로 여기고, 마음속의 정은 표현하지 않게 되었다. 부부유별이라는 가르침을 으뜸으로 하여 이를 사내다운 마음가짐이라 생각하고, 후대에 반드시 이것만 행하게 되고 문장이나 와카도 중국의 것을 모방하게 되니, 진솔한 정은 누구도 표현하지 않게 되었다. 이 기록도 이런 세상 관습에 따라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남자의 기개가 없는 것이라고 남들이 생각하지는 않을까 우려하여, 여인네가 쓴 것인 양 써놓은 것인가. 세상이 변천하는 모습은 글과 노래에서나 대강 알 수 있을 것이다.

11) 『秋成遺文』pp.536-537

즉, 시대가 융성해짐에 따라 중국문학의 영향에 의해 허황되게 꾸미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진솔한 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부부 사이에도 구별이 있는 관계를 미덕으로 삼고 ‘사내다운 마음가짐(ますら男心)’을 얻었기 때문에, 후대에는 오로지 그러한 중국적인 문학관을 규범으로 와카와 문장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도사 일기』도,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을 탄식하는 것은 ‘남자의 기개(오토코다마시, 男魂)’가 없는 것이라고 부끄러워하여 여자인 척 가장하고 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다. 결국, 아키나리는 앞서 이야기한 ‘부끄러움 설(說)’을 염두에 두고, 다비토가 아내를 잃은 슬픔을 노래한 와카를 『도사 일기』에서 아이를 잃은 슬픔을 노래한 와카에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 아닐까. 동시에 아키나리는 이 ‘부끄러움 설’의 배경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고전관에 기초한 언설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언설이라는 것은 모두 부분의 ‘시대가 융성하여 사람 마음이 꽃(=겉모습)의 예쁜 모습에만 정도됨에 따라(御代はみさかりに人の心花に移りまされるより)’와 같은 표현 속에 저절로 드러나 있다. 즉 이 표현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의 쓰라우키의 가나 서문(仮名序文)에 이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마부치의 『고킨와카슈 우치기키(古今和歌集打聽)』서문에 대한 언설을 말한다. 이 책의 판본은 아키나리가 교정, 출판한 것으로 마부치의 저작 중에서도 아키나리가 가장 친밀하게 반복하여 이용한 것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이 책에서 해당부분을 가나 서문의 본문과 같이 아래에 인용하고자 한다.¹²⁾

지금 세상이 화려함을 좇고 사람의 마음도 꽃처럼 아름다운 것만을 바라게 되어 내용이 속된 와카, 헛된 것들만 세상에 나오니, 와카라는 것이 호사가들의 전유물이 되어 식자들은 마치 죽은 나무처럼 와카를 내버려두고, 진지하거나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참역새의 이삭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지금 세상이라 함은 장소로서는 지금의 교토, 시간은 엔기(延喜:907년~923년) 시대를 말한다. 한편 와카는 마음의 진솔함을 말하는 것으로 옛날에는 솔직하고 올곧았지만 후대에는 화려함만을 좇아 그저 희롱거리로 삼을 뿐이니, 점잖

12) 『賀茂真淵全集』第9卷(53年9月、続群書類従完成会)p.21

은 사람이 보고 즐길만한 것이 아니라며 호사가의 집에 숨겨두게 되었다는 말이다. 죽은 나무(埋木), 참역새의 이삭(はな薄)은 둘 다 관사(冠辭)이다. 이는 와카의 덕을 억지로 꾸민 것이다. 옛날 『고지키(古事記)』, 『니혼쇼키(日本書紀)』, 『만요슈(万葉集)』 등의 와카는 연모의 정을 읊은 것이 많았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을 잘 꾸며낸다. 일본의 옛 사람들은 속과 겉을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기에 연모의 감정을 읊은 와카가 많았다. 이 부분도 역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좇아 쓴 것이다.

마부치는 쓰라유키의 문장에 대해서, ‘이는 와카의 덕을 억지로 꾸민 것이다’라고 하여, 쓰라유키가 본뜻을 숨기고 중국풍의 문학관에 의해 와카의 특질을 기술했는 것이라고 한다. 요컨대 쓰라유키는 ‘지금 세상(いまの世の中)’ 운운하며 헤이안(平安) 시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화려하고 아름다움만을 좇아 ‘이로고노미(色好み)’적인 와카가 많아졌다고 했지만, 본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와카는 『만요슈』시대부터 그 본질에 기초한 연모의 정을 토로하는 와카가 많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가나 서문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가인이나 작자미상이 많기는 하더라도 그 많은 연모의 와카를 『고킨와카슈』에 선별해 넣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쓰라유키는 시대에 영합하고 한편으론 마나(真名) 서문과의 균형도 생각하여, 표면적으로는 중국적인 사대부 문학을 모범으로 하는 입장의 표현을 가나 서문에 적당히 써 넣었다. 그래서 마부치는, 와카의 이로고노미의 경향이야말로 문학의 특질이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자학적인 표현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아키나리가 ‘이로고노미 가문예(色ごのみの家に)’ 운운했던 부분과 연관 지어 연모의 와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잠시 제쳐두면, 헤이안 시대 당시에는 중국 시문의 영향으로 진솔한 감정을 곧이곧대로 토로하기 어려웠다는 인식은 마부치와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쓰라유키는 그것을 부끄러워해 여인네의 문자를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아키나리도 가나 서문의 이 대목을 쓰라유키가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적은 것으로 파악했고, 결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셈이

다. 아키나리와 마부치를 구분할 수 있는 점은, 아키나리가 어디까지나 『고킨와 카슈』의 주 편집자인 쓰라유키를 기점으로 문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마부치는 쓰라유키를 넘어 『만요슈』 와카에 그 문학의 원점을 구하고자 했던 점일 것이다. 마부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에도 시대의 수많은 가인, 와가쿠(和学)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쓰라유키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대단히 절실한 문제였다.

秋成の文学観

－さてもめめしとや聞たまはん－

鈴木淳

はじめに

上田秋成は、京都に移住して四年目の六十四歳に当たる寛政九年の十二月十五日に、長年、連れ添ってきた珊瑚尼と死別した。『文反古』上巻には、

珊瑚尼かとみの病してむなしく成しとき、蘆庵翁の聞えたまふる

(1)と題して贈答の書翰が数通収められる。その中に、詞書きに「ありわひつゝ翁へ」とある一通とほぼ同じ内容の書翰が、国学院大学図書館に所蔵され、次のようにある(2)。

聞つらしとて耳ふたかせ、目も閉たまはん歟、京なにはの人々のとし来たのもの
しけにいひしは、今は偽なりけり

あはた田あはれと人のとひこしも跡無き空の風のしら雲
逃水のにけいろ見せてむさしの草の枕もかさしとやする
さてもめゝしとや聞きたまはん、今は恥といふ事さへ忘れて

『文反古』と比較して歌、詞書きともに小異があるものの、趣意は同様であ

る。今は、とくに歌の後に、「さてもめゝしとや聞たまはん」云々とあることに注意したい。秋成の歌は、珊瑚尼の死を境に、人々の素振りから手の裏を返したような冷たい印象を受けたことを表現したものと解釈される。そして秋成は、このように恨みがましいことを吐露することが、女々しくて恥ずべきことという意識を持ちながら、このときばかりは、自分の感情を制御しかねたようにみえる。それだけ、珊瑚尼の死から受けた衝撃が大きく、そこからなかなか立ち直れなかった様子が伝わってくる。

しかし、この「さてもめゝしとや聞きたまはん」云々の表現は、歌の前の「聞つらしとて」云々と合わせて、いかにも大仰で、歌とも必ずしも融和しているとはいえないように感じられる。ここでは、自然の感情に任せた表現というより、むしろ秋成が、みずからの文学観と関わらせながら、敢えて実験的に「めゝし」の語を使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せるふしがある。いま、このことと関連して、「めゝし」という表現に着目しながら、秋成の文学論にいい及んだ、最近の研究をふたつほど紹介したい。一つは、原雅子の「秋成の『土佐日記』注釈—『ますらを』観の系譜—」(『すみのえ』二九ノ一、一九九二年)で、のち『江戸の鬼才上田秋成』(中経出版、二〇〇七年八月)に収められた。今ひとつは、飯倉洋一の「『秋山記』の再検討—「めめしき」の意味するもの—」(『江戸文学』第二十八号、二〇〇三年五月)で、のち「『めゝしき』の意味するもの—『秋山記』試論—」と改題し、『秋成考』(翰林書房、二〇〇五年)に収められたものである。

一、『土佐日記』の亡児悲傷と旅人の亡妻悲傷

まず原氏は、秋成の師である加藤宇万伎の『土佐日記解』の諸本中に、秋成による寛政十一年頃の講義録に、弟子が「大人云」などと朱書して秋成説を書き加えた本が伝わることに気付き、そのうちの一本である大阪中之島図書館本の次の記事に着目する(3)。

大人云、彼ははしめにいひし、大伴の卿旅人の君の還入故御家即作歌三首

人もなきむなしき家は草まくら旅にまさりて苦しかりけり
 妹をしてふたりつくらし我いへは木高くしけく成にけるかも
 わきもこがうへし梅の木みることに心むせつゝなみたしなかる

これは、妻をつくしにて失ひし也、こゝは土左にてかなし子をむなくせし
 也、似たるなけきなれば、むかしを思ひ出ておのつからならひしやうのみゆる
 也、ならへりしといふ共、紀氏おとしむるにはあらで、いにしへを見あきらめ
 たる人のこゝろ也、又云、彼おもてをますら男にして、めゝしきを恥とするそ
 のかみの人こゝろ也、子をいとをしと思ふこゝろはいかてめゝしとはいはん、
 世のことはりとはいはれをこそ

右によれば、秋成は、貫之が、太宰府の任を終えて帰京し、亡妻を偲んで詠
 んだ旅人の歌三首に深く共感し、「似たるなけき」として、『土佐日記』の亡児悲
 傷の場面の執筆に及んだと考えたのである。その「似たるなけき」を表現するのに、
 女文字の形式を借りたのは、「めゝしきを恥とするそのかみの人こゝろ也」とする。
 「恥」の語は、最初の国学院大学蔵の書簡にも見える語であるが、要するに、めめし
 い感情をそのままでは表出しにくい、中国的もしくは東アジア的な士大夫の文学
 観が声高に唱えられていた時代であるからというのであろう。原氏は、秋成のこ
 の注について、

人情は表面が「ますら男」であっても、悲しい時には心は悲しいのであるからと
 「めゝし」を首肯する。『土佐日記』注釈史上、非常に画期的な注である。

と賞賛する。

『土佐日記』における亡児悲傷のくだりとは、十二月二十七日の段をさしてい
 る(4)。

かくあるうちに、京にて生まれたりし女子、国にてにはかに失せにしかば、こ
 の頃の出で立ちいそぎを見れど、何言も言はず、京に帰るに、女子の亡きのみぞ

悲しび恋ふる。在る人々もえ堪へず。この間に、ある人の書いて出だせる歌、

都へと思ふをもの悲しきは帰らぬ人のあればなりけり

また、ある時には、

あるものと忘れつゝなほ亡き人をいづらと問ふぞ悲しかりける
と言ひける…

このくだりは、日記の最後の、上京後、愛児とともに帰って来られなかった悲しみをあらたにし、人々と歌を贈答したくんだりとも呼応し、作品全体の主要なモチーフを形成している。秋成は、貫之が、これらのくだりを表すために『土佐日記』を作ったともみているのである。

『万葉集』巻三の挽歌に、大伴旅人の亡妻を偲ぶ歌三首が載っている。いまそれらを、上田秋成の注釈『櫛の杣』によって引いてみる(5)。

天平二年庚午冬十二月、太宰帥大伴卿、向京上道之時作歌

吾妹子か見し軈の浦の天木香樹は常世にあれと見し人そなき
軈の浦の磯の室の木見ん毎に相見し妹は忘れめやも
相共に見し也。
磯の上に根はふむろの木見し人をいつらとゝじかたり告んか

卿、筑紫におはす間に、妻のむなしく成れしをいたく悲しみて、此任充て京へ参るに、此浦にいとふりたるむろの木の立るを、往きには共に望見て、此下に遊びし事を思し出て、頻に悲しく成たれば、くり言のやうに、三首までよまれし也。(略)人はいつらの詞章感あり。

この歌は、秋成の注にあるように、大伴旅人が太宰府の任が果てて、帰京の途次、軈の浦のムロノキを目にし、下向の際には、妻の大伴郎女といっしょに見

たことを思い出しながら詠じたものである。秋成がとくに意を留めたのは、この三首の背景に、旅人の亡妻に対する思慕の深さが元になって、三首が繰り言のように生ま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当然の指摘とはいえ、余分な鑑賞評を極力抑えた『櫛の柚』が敢えて筆を及ぼしていることに注意したい。また、最後にとくに「人はいつらの詞章感あり」と言い及んでいることと、前掲の『土佐日記』の亡児悲愁の二首目に「人をいづら」とあることを思い合わせると、この二首における字句の表現の類似性が、旅人歌と『土佐日記』を結び付ける確信を支え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また、『万葉集』の秀歌撰とされる『金砂』巻四には、同じ『万葉集』巻三から別の二首を引きながら、次のようにある(6)。

人もなきむなしき家は草まくら旅にまさりてくるしかりけり
妹としてふたりつくりし我山齋は木たかく茂く成にけるかも

筑紫の任中に、正妻のむなしくならせし後。都にかへりて。打なきてよみたる也。天平二年十二月に。筑紫を立て。翌春三月に京にかへりて。其秋七月に卿も薨せられし也。哀傷に堪かたくてや。

旅人は、帰京後、妻を亡くした悲しみを率直に歌に詠じて自らの気持ちを慰めようとするが、それもかなわずその年の七月に世を去ることになる。秋成は、旅人の死は妻への哀惜の情が耐え難かったことに主たる原因があろうと類推し、旅人の晩年の政治的な不遇と重ね合わせて、その歌人としての生き様に深く同情しているかのようである。上に触れた『土佐日記解』の大阪中之島図書館本に、秋成が引いていたのも、右の旅人歌に他ならない。

二、「秋山記」の『源氏物語』批評

ついで、飯倉氏は、秋成の歌文集『藤篋冊子』巻三に収められた、安永八年、但馬国城崎へ湯治に出掛けた際の紀行文「秋山記」において展開される、法師に

よる、『源氏物語』評を取り上げる。同氏は、法師が、『源氏物語』を、女性の作者による人間としてのいやらしさや弱さを露呈した作品であるとするが、「かうやうの筆つきなん、をみなのめゝしきほん性にてこそあれ」(7)と結論付けられていることに着目し、次のように述べる(8)。

法師は『源氏物語』を道に益するものとして読むことは無意味ではあるが、源氏をはじめとする登場人物の、人間としてのいやらしさ、弱さをよく描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実は評価しているのであり、それを達成したのは、女性の手になるからなのだと言っているのである。「めゝしき」心が、このような人間の真実を「あなぐり出」すと。

つまり、秋成は、「秋山記」において、法師によって展開される『源氏物語』批評を通じて、『源氏物語』が、その「めゝしき」筆致によってしか人間の本性を描き出すことができなかつたことを照らし出そうとしたとし、かつそのことを『源氏物語』の本質として肯定的に捉えていたとするのである。

また、飯倉氏も、この「めゝしきほん性」の議論の背景に、やはり秋成の『土佐日記』論があるとして、宇万伎の『土佐日記解』序を引いて論ずるところがある。藤井乙男編『秋成遺文』に収められる「土佐日記解序」がそれで、宇万伎の『土佐日記解』二巻の序文として、秋成が寛政二年二月に筆を執ったものである。全体が、貫之自筆本、執筆動機という二条から成っているが、飯倉氏が引く後者には次のごとくある(9)。

一、この記のなれる故は、貫之土佐の国に任充ちてかへる年、いとかなしくせし子の病して死たりしを、飽かず歎き惜れしが、さすがに人目の女々しさを恥ぢらひて、女ふみのさまに書かれしといふはさるものから、是は天平の昔大納言旅人卿、太宰の帥にてかしこにおはせし後に、任充ちて都へ上らるゝ時、西へまかりし始にとも見し所々に来ては、其人のいまそかりしが幻に見ゆるとて、歌あまたよまれしが万葉集に見えたり。此日記はまたく是によられしにや、然らずや。されば古への人の心は直かりしまゝに、つくろひ飾れる所なく、喜び悲びをもせしかば、妻子の死ての別はもとよりにて、旅に出立ちても面白き所々に来ては、

いかで是見せばやなど心くまなく打出しものぞ。

右について、飯倉氏は、

貫之は、任地で死んだ愛児を思う気持ちが強かったが、これをそのまま表出するのは男らしくないので「めゝしさを恥」じて、女の文体(仮名文)で書いたのだという。大伴旅人の任地からの帰途、亡き妻を悼み、「心くまなく」詠出した歌に倣ったものかと秋成は言う。

(10)と述べており、基本的に首肯されるべき議論であろう。ただし、右の引用中、最初から「さすがに人目の女々しさを恥じらひて、女ふみのさまに書かれしといふ」までに説かれる、『土佐日記』が貫之が愛児を失い、歎き悲しむ様をそのまま描くのは、さすがに恥ずかしく人目が憚られるので、女が書いたように見せかけたとする説、つまり恥じらい説もしくは人目憚り説は、その書きぶりからして、宇万伎その他から人伝に聞いた言説で、秋成自身の説ではない可能性もあろう。「といふ」として、敬語を使っていないところからすると、宇万伎ではなく、真淵あたりの言説として受け止めているらしく思われるが、確証はないので保留したい。

三、仮名序「色好み」の解釈

原氏、飯倉氏の両氏が、「めゝし」の語に着目し、秋成の文学観にいい及んだのは、炯眼というべきものであろう。ただし、いずれも、肝心なことを閑却視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前掲の『土佐日記解』序に続くくだりを左に引いてみよう(11)。

御代はみさかりに人の心花に移りまされるより、唐土人の飾り詐れるふみの巧みをよき事として、下の情はあらはさず、夫婦は別あるべき教をむねとし、是をなんますら男心ぞと意得しかば、次々の世は必ずしかのみ事行ひ、文をも歌をも

うちまねぶ事となりぬれど、実の情は誰もしからざるべき事なり。この記も世のならひして、かなし子の事強ひて悔ゆるは男魂もなしと、人の思はんをやさしみて、女の書けるさまに写しなされたりけるものか。世の移りゆくさまは、文と歌にこそおほろかにもおぼし知るゝなりけれ。

すなわち、時代が隆盛するにつれ、中国文学の影響により、その虚飾性を是とし、実の情を表現せず、夫婦間もけじめのある関係を美德とし、「ますら男心」と心得たがために、後代にはもっぱらそうした中国的な文学観を規範として歌も文も習うことになったが、実情はみなそ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とする。そして、『土佐日記』も、愛児の死を歎くのは「男魂」がないと思われるのを恥じて、女に仮託して書いたものであろうかとする。

結局、秋成は、恥じらい説を念頭に置きながら、旅人の亡妻悲傷歌を『土佐日記』の亡児悲嘆のくだりに結び付けたということではなかろうか。同時に、秋成は、この恥じらい説の背景にある、ある特定の古典観に基づいた言説も当然、踏まえていたと思われる。その言説とは、この最初の「御代はみさかりに人の心花に移りまされるより」云々という方のうちに自ずから顕れていよう。すなわち、『古今和歌集』の貫之の仮名序の行文に胚胎したもので、具体的には真淵の『古今和歌集打聴』序文に対する言説である。同書の板本は、秋成が校訂、出板したもので、真淵の著作のなかでも秋成がもっとも親しく繰り返し繙いたものといってよからう。いま同書から当該の部分の仮名序本文とともに、左に掲出してみたい(12)。

いまの世の中、いろにつき、人の心、花になりけるより、あだなるうた、はかなきことのみいでくれば、色ごのみの家に、うもれ木の、人しれぬことゝなりて、まめなるところには、はなすゝき、ほにいだすべきことにもあらずなりたり

今の世中とは、今の京と成て延喜の比までを云、且歌は心のまことを云ものにて、いにしへはすなほにて正しかりしを、後々は色好みにつきてたはれくつがへることのみなれば、実なる人の見ばかゝるべきにあらずと、其色このめる家にかくしおけると云也、埋木はな薄共に冠辞也、是は歌の徳をしひてかざれるもの

也、いにしへ古事記、日本紀、万葉集等の歌は恋の歌の情をよめるこそ多けれ、から国の人には心をおかくして表をよく為也、御国のいにしへ人は心にうらうへをおかず、仍て心のまことのみを打出れば、恋のうた多き也、こゝもから人のこゝろもてかけり

真淵は、貫之の文章について、「是は歌の徳をしひてかざれるもの也」とし、貫之は本音を隠しながら、中国風の文学観に拠り、和歌の特質を述べたとする。つまり、貫之は、「いまの世の中」云々すなわち平安時代になって人心が華美になったために色好みの歌が多くなったとするが、本心ではそう思っておらず、むしろ和歌は『万葉集』の時代から、その本質に基づき恋の情を吐露する歌が多かったことを認識していたはずであるというのである。そうでなければ、仮名序のいい方とは裏腹に、あれほど多くの恋の歌を、『古今和歌集』に撰入させたことの説明がつくまいというのであろう。貫之は、時代に阿り、かつ真名序とのバランスも考え、表面、中国的な士大夫の文学を是とする立場に立った表現を仮名序で弄したために、和歌の色好みの傾向を、実はそれこそ文学の特質とみていたにも関わらず、非とするような自虐的ないい方をしたと、真淵はみたのである。

それに対して、秋成が「色ごのみの家に」云々に絡んで、恋の歌をどう捉えていたかはひとまず措くとして、平安時代の当時、中国の詩文の影響で、真情を率直に吐露しにくくなったという認識は真淵と共通しており、ために貫之はそのことを恥じらい、女文字を使って自らの感情を表現せざるを得なかったとみた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秋成も、仮名序のここのくだりを貫之の韜晦のように捉え、けして額面通りには受け止めていなかったことになる。秋成と真淵を分けるのは、秋成が、あくまで『古今和歌集』の主撰者貫之を基点として、文学を考えているのに対し、真淵は貫之を超えて、『万葉集』の歌にその文学の原点を求めようとしているところであろう。真淵はともかく、江戸時代の多くの歌人、和学者にとって、貫之が本当のところどう考えていたかを探ることは、きわめて切実な問題であった。

注

- (1) 『上田秋成全集』第十卷(一九九一年一月、中央公論社)三八五頁。
- (2) 『文学』(隔月刊)第一〇卷第一号(二〇〇九年一・二月)の拙稿「国学院大学図書館所蔵の書簡幅の紹介」所収。
- (3) 原雅子著『江戸の鬼才上田秋成』一五二、一五三頁より転載。ただし読点は鈴木。なお大阪府立中之島図書館本の位置づけについては、一戸渉『『土佐日記解』成立考—宇万伎・秋成の土佐日記注釈—』(『国語国文』第七十八卷第五号、平成二十一年五月)を参照されたい。
- (4) 新日本古典文学大系『土佐日記 蜻蛉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一九八九年一月、岩波書店)五頁。
- (5) 『上田秋成全集』第二卷(一九九一年二月、中央公論社)二五一—二五二頁。
- (6) 『上田秋成全集』第三卷(一九九一年五月、中央公論社)一七九頁。
- (7) 新日本古典文学大系『近世歌文集 下』(一九九七年八月、岩波書店)三九二頁。
- (8) 飯倉洋一著『秋成考』(二〇〇五年二月、翰林書房)一七三頁。
- (9) 藤井乙男編『秋成遺文』(昭和四十九年十一月復刻、国書刊行会)五三五—五三六頁。
- (10) 『秋成考』一七八頁。
- (11) 『秋成遺文』五三六—五三七頁。
- (12) 『賀茂真淵全集』第九卷(五十三年九月、続群書類従完成会)二一頁。